

# 정읍(고부) 지역 동학 농민혁명 연구의 쟁점과 과제

황민호\*

- I. 머리말
- II. 학술회의 현황과 연구경향
  - 1) 학술회의 현황과 동학혁명 기념일 문제
  - 2) 고부봉기의 성격과 전주화약
- IV.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민족운동의 전개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시(고부)에서 2011년부터 개최한 총 12회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 68편의 연구 경향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크게 보아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 제정 문제와 고부봉기와 전주화약의 성격의 이해 및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정읍지역에서의 민족운동의 전개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읍지역에서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경향은 고부민란이 민란단체로서의 동학운동이 아니라, 동학혁명을 견인해 낸 최초의 역사적 사

---

\*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건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이 학계 일반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역량의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전주화약을 기념일로 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동학혁명기록물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읍지역에서의 일제시기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보천교운동과 형평운동의 경우 그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영역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적 특성과 연결된 독립운동 관련 중요 인물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초보적 수준에서 벗어나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동학농민혁명, 전주화약, 고부민란, 고부봉기, 동학농민혁명기념일, 보천교운동, 정읍지역 3.1운동

## I. 머리말

1894년 1월 井邑 高阜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사회의 신분적 억압과 부정·부패의 고질적인 병폐를 척결하고, 나아가 외세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치열했던 민중항쟁이었다. 그리고 이 혁명은 당시 기층 민중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의 정당한 사회변혁의 요구와 개혁 담론을 국가와 사회가 거부하거나 지체했을 때 이후 민중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가혹했던 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무능하고 나약한 조선왕조와 외세 의존적 경향의 보수 유림, 그리고 일본의 침략 야욕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후 한말의 의병운동과 3·1운동 및 항일무장투쟁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한국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힘으로 작용해 왔다.

동학농민혁명은 이후 일제시기<sup>1)</sup>와 4·19혁명시기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기념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가 되었으며, 국가기념일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는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학문적 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sup>2)</sup>

이 같은 분위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시에서는 2011년 4월 7일 제44회 황토현축제 기간 중에 동학농민혁명 전국학술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역 내의 관련 학술회의를 포함해 총 12회에 걸쳐 총 6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sup>3)</sup> 이밖에 2편의 자료집<sup>4)</sup>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묶어 발간한 단행본이 있다.<sup>5)</sup> 그리고 여기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학술대회에 포함되지 않은 1편의 논문을 추가하면 총 69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여겨진다.<sup>6)</sup>

1) 당시 천도교청우당에서는 동학군이 전라감영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황토현전투가 있었던 4월 7일을 기념일로 정하였다. 일기자, 「갑오동학란의 자치자중」, 『개벽』 68, 1926.4. 성주현, 「천도교와 동학혁명 기념일」, 『신인간』 731, 신인간사, 2011. 8.

2)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http://www.riss.kr))를 통해 '동학농민'으로 검색해 보면 학위논문은 264건, 국내학술지논문은 762건 등이 검색되고 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사연구회보'에서 같은 용어로 검색해 보면 579건이 검색된다.

3)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학술회의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와 관련 학술단체 및 정읍시청 등에 문의해서 작성한 것이며, 추가로 학술대회 개최 사실과 발표 논문이 확인되면 논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선인, 2014. 이 자료집은 특히 고부지역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은 것이며, '송재섭, 「甲午農民革命亂과 奎璋準將軍實記」라는 미공개 자료'가 최초로 실렸다.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선인, 2017.

5) 전북사학회편,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미』, 흐름, 2011년 12.

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선인, 2014에서 발간된 자료집의 2부에는 2013년 7월 5일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윤원호, 「19세기 고부의 사회경제」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미 본고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동학농민운동 관련 학술회의에서의 발표논문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검토해 보는 한편, 기념일 제정의 문제 및 고부봉기와 전주화약의 성격의 논의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이후 정읍이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한말·일제 하의 민족운동의 흐름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계승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보아 본고의 이러한 노력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의의를 보다 분명히 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학술회의 현황과 연구경향

### 1) 학술회의 현황과 동학혁명 기념일 문제

정읍시가 주최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회의는 기본적으로 향후 전개될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목표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동안 진행된 학술대회의 주제를 검토해 보면 그 성격과 관련해 몇 가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sup>

첫째, 총 12회의 학술회의 가운데 정읍시가 주관했던 학술회의는 10회 것으로 보이며, 11건의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전문적인 학술연구 단체의 주관 하에 주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나 초기단계를 중심으로 한 전개과정의 문제가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제1·2·3·5·8회] 그런데 학술대회의 이 같은 성격은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을 알리는 고부봉기로 대표되는 정읍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

7) 이 학술회의에 대해 정읍시에서는 '김생기시장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http://www.jeongeup.go.kr/01kr/index.html>)고 밝히고 있다.

〈표 1〉 학술회의의 주제와 주관기관

번호	날짜	주관 기관	주제
1	2011. 5.7	정읍시	동학의 창도에서 백산대회까지
2	2011. 11.18	전북사학회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과정과 기념사업
3	2012. 5.11	동학학회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어떻게 시작되었나
4	2012. 9.14	전북사학회 · 정읍시	동학혁명과 태평천국혁명 제1부주제: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 과거·현재·미래를 논하다 제2부주제: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의 기념사업
5	2013. 7.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정읍시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6	2013. 11.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정읍시	한국사 교과서와 문학작품 속의 동학농민혁명
7	2014. 11.1	정읍동학혁명계승기념사업회 ·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정읍지역 근·현대 민족운동사
8	2014. 11.28	전북사학회 · 정읍시 · 부안군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대한 재조명
9	2015. 11.2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한국국제사학회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점검과 대안
10	2016. 8.26	전라북도 · 정읍시	동학혁명 이후 전북근대 민족운동
11	2016. 9.2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12	2017. 5.2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 정읍시 · 전라북도 ·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

둘째, 동학혁명과 ‘태평천국혁명’을 비교한 연구나 동학혁명의 세계화에 대한 점검과 대안에 관한 학술회의 및 문학작품과 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주제 등은 동학혁명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2년 9월 12일에 개최된 ‘동학혁명과 태평천국’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 과정에서는 “남경시와 상호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국제화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발판을 만들기도 하였다.”<sup>8)</sup>

셋째, 2013년 11월 5일의 학술회의는 한국사교과서와 문학작품 속의 동학혁

8) 「동학농민혁명 과거 현재 미래 논하다 정읍시 남경시 MOU체결 국제학술대회」, 『전라매일신문』, 2012. 11.12.

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우선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8종의 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술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교학사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개항 이후 자주적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반봉건·반침략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학혁명의 전개과정을 구분하면서 教祖伸冤運動의 전개와 高阜蜂起까지를 혁명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茂長蜂起 이후 전주성 점령까지를 제1차 혁명기로, 청·일 양국군의 개입 이후의 봉기를 제2차 혁명기로 설명하여 고부봉기의 역사적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sup>9)</sup>

문학작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소설화한 작품 가운데 남·북한 최고의 것으로 평가되는 송기숙 『녹두장군』과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고부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이 되는 첫 사건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손화중·김개남 등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이끌어감으로서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사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문학작품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했던 이 논문은 동학농민혁명의 대중적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0)</sup>

넷째, 2015년 11월 20일에 개최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에 대한 학술회의에서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서의 학자를 초청하여 지역별 연구현황을 검토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다.<sup>11)</sup> 이 회의에서는 동학의 인간존중과 평등사상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反封建과 反侵略運動은 근대이행기

9) 조성운, 「2011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 교과서와 문학작품 속의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학술대회, 92~93쪽, 2013. 11.5.

10) 채길순, 「문학작품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한국사 교과서와 문학작품 속의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학술대회, 118-119쪽, 2013. 11.5.

11) 발표자와 논문제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비온티노 유리안(서울대 연구원), 「서양인이 본 동학의 옛날과 오늘-영어권, 독어권,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진열(중국 갑오전쟁박물관 교수), 「중국인의 동학혁명 인식」, 이노우에 가츠오(호카이도대학), 「일본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성과와 과제」, 드미트리파블로프(러시아 아카데미연구소), 「러시아 군부의 관점에서 본 청일전쟁과(1894-1895)러시아의 극동정책」

에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운동으로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그 유적지를 보호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sup>12)</sup>

이는 같은 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sup>13)</sup> 2017년 5월 29일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정읍시 등의 후원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와 기록물의 범위 및 등재방안이 검토되었는데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농민군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민간인이 남긴 文集과 日記, 동학농민혁명 見聞錄, 조선정부가 생산한 공문서와 보고서, 조선주재 일본 공사관이 공문서 등 전체 175건, 약 1,200여쪽의 문서가 의미있는 기록으로 정의되었다.<sup>14)</sup> 그리고 2017년 6월 27일 문화재청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하였다.<sup>15)</sup>

한편 정읍시가 주관한 학술회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문제와

- 12) 유영렬,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와 과제」, 한국민족운동사학회·한국국제사학회,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점검과 대안』 학술회의 자료집, 14~16쪽, 2015. 11.
- 13)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동아일보』 2015. 6.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14) 홍성덕, 「기록학적 관점에서 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가치」,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7. 5. 195쪽·203쪽. 또한 발표자는 이 학술대회에서는 경북 상주시에서 신청한 상주동학당 동학기록물과의 중복성 때문에 탈락할 계연성이 높다. 따라서 시급한 당면과제는 상주동학당 동학기록물과의 차별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인정받아야 한다. 상주동학당 기록물은 1915년에 개창한 상주동학교에서 생산한 문서로 주로 1920년대 전후에 생산된 종교기록물이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 기록으로 기록물의 성격, 내용, 형태 등 모든 면에서 상주동학당 기록물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 15) 문화재청은 지난 27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지난 4~5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 10건을 심사해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전했다 「'동학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 선정」, 『연합뉴스』 2017. 6.28.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중국, 프랑스, 독일에서의 기념일과 기념사업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sup>16)</sup>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념사업의 문제나 기념일제정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 연구가 발표되었다.<sup>17)</sup> 특히 2004년 2월 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과 관련된 행사의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면 天道敎靑年黨에서는 1926년 4월 7일에 제32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했는데 당시 천도교가 발행하던 잡지 『開闢』에서는 “4월 7일 古阜 42里 되는 黃土峴에서 全琿準軍과 接戰하여 死傷 千餘을 남기고 餘地없이 敗退하니 이것이 東學革命運動의 첫 烽火이었다.”라고 하여 황토현전투에서의 勝戰日을 동학혁명기념일로 채택하였다.<sup>18)</sup> 해방 후에는 1947년 2월 9일에 천도교청우당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는데 이 날은 고부기포를 기념한 것이었다.<sup>19)</sup> 이후 천도교 교단에서는 1961년부터 3월 2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정하고 2013년까지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이는 백산기포일을 염두에 둔 것이며, 이날이 해월 최시형의 탄신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sup>20)</sup>

16) 이용재, 「프랑스혁명과 기념일」, 비온티노, 「독일농민전쟁과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과정과 기념사업』 학술회의, 전북사학회, 2011. 11.18. 張鐵寶, 「중국의 태평천국운동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운동의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혁명 국제학술대회, 2012. 9.14.

17) 임형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언」,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과정과 기념사업』 학술회의, 전북사학회, 2011. 11.18. 김인덕,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의 건립과 기억의 전승 -역사적 의의와 동학농민혁명 기념물」,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7.5. 성주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과 전주화약의 의미」,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학술발표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 9.23.

18) 일기자, 「갑오동학란의 자치자중」, 『개벽』 68, 1926.4, 39쪽.

19) 「동학혁명운동의 54주년 기념」, 『대한독립신문』, 1947년 2월 7일. 「조선민주혁명의 선구 동학투쟁 기념식 성대」, 『대동신문』, 1947년 2월 11일.

임형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언」,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편, 2011. 275-276쪽에서는 이날 기념식에는 천도교측의 우파인 최동오와 사회주의계열의 홍남표, 허현, 여운형, 인정식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은 동학농민혁명과는 무관한 날로 역사적 사실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20) 성주현, 「천도교와 동학혁명 기념일」, 『신인간』 731, 신인간사, 2011.8. 천도교 교단에서



이 같은 상황에서 ‘특별법’이 제정 된 이후 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고부봉기일(2월 15일), 무장기포일(4월 25일), 백산대회일(5월 2일), 황토현 전승일(5월 11일), 전주성 입성일(5월 31), 전주화약 체결일(6월 10일), 집강소 설치일(8월 6일), 우금치 전투일(12월 4일), 특별법 공포일(3월 5일), 해월 탄일일(3월 21일)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sup>21)</sup> 그리고 기념일 제정 논의를 주관해 왔던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추진 위원회에서는 2015년 1월 21일 학계자문단 논의를 거쳐 기념일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3월 3일 찬반투표를 거쳐 전주화약일을 기념일로 선정하였다.<sup>22)</sup> 그러나 ‘전주화약 기념일’이 다수의 기념사업회와 지자체들로부터 반발을 사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전주화약일을 기념일로 하는 대 정부 건의안을 철회하였다.<sup>23)</sup> 따라서 이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논의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2) 고부봉기의 성격과 전주화약

정읍시가 주관한 10번의 학술회의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제는 역시 고부봉기와 관련된 연구이며,<sup>24)</sup> 대체로 동학농민혁명은 고부봉기가 그 시

---

1961년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4·19혁명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형진, 앞의 논문,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276쪽.

- 21) 조 광, 「동학혁명의 제정일에 대한 의견-그 반봉건 반침략적 성격의 출생의 비밀을 찾아서」,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전북사학회 편, 2011. 374쪽.
- 22) 기념일의 기준은 첫째, 전국화, 세계화의 이미 함축(역사적 의미 및 상징성과 정책적 필요성), 둘째,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날(국민적 공감대 및 지속가능성), 셋째, 다른 기념일과 중복되지 않는 날을 원칙으로 하였다. 성주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과 전주화약의 의미」,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학술발표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 9.23. 95~102쪽 참조.
- 2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일 '전주화약일' 포기」, 『newsis』 2017. 7.4.
- 24) 대부분의 연구가 직·간접적으로 고부봉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목에서 직접적으로 고부봉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8건 정도이다. 성주현, 「고부봉기에서 백산대회까지」, 『동학의 창도에서 백산대회까지』 학술대회, 2011. 5.7. 김인걸, 「고부기포의 성격과 역사적의의」,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과정과 기념사업』 학술회의, 전북사학회, 2011. 11.18. 박대길, 「고부봉기와 동학농민혁명」·김정호, 「사발통문거사계획과 동학농민혁명」, 『동학혁명 어떻게 시작된다?』 동학학회, 2012. 5.11. 성주현, 「사발통문의 재검토와 '고부기포」·강효숙, 「

발점이었으며, 무장기포를 거친 후 백산대회를 통해 동학농민군은 명실상부한 혁명군으로서 위상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5)</sup> 또한 사발통문에 나타난 전봉준 등의 계획이 황토현전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고 하여 고부봉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한 연구도 있다.<sup>26)</sup>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봉기부터로 혹은, 무장기포부터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념일 제정 문제와 연계되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양상이며,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28일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주제 하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sup>27)</sup>

이 회의에서는 동학혁명의 기점에 대해 고부봉기와 무장기포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으며, 고부봉기설의 경우는 사발통문의 앞부분의 떨어져나가 알 수 없었던 ‘天下飛檄’과 ‘通文’의 내용이 실려 있는 「甲午東學革命亂과 全瑋準將軍實記」의 내용을 분석하여 고부봉기의 역사적 위상을 강화해 가고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全州營을 陷落하고 京師로 直行할 事’를 포함하는 4대항의 내용이 이미 고부봉기 단계에서 제기된 것이며, 따라서 고부봉기에 대해 단순한 민란이 아니라 전국적 규모의 농민운동·정치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28)</sup>

일본 언론에 나타난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7.5. 조광환, 「사발통문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성주현,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과정과 논쟁점」,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대한 재조명』 전북사학회, 2014. 11.28. 박대길, 「동학농민혁명 성지로서의 정읍의 역할」,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년 9.23.

25) 성주현, 「사발통문의 재검토와 ‘고부기포」,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7.5. 박대길, 「고부봉기와 동학농민혁명」, 『동학혁명 어떻게 시작되나?』 동학학회, 2012. 5.11.

26) 조성은, 「황토현전투의 역사적 의의」,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7.5.

27) 이 학술회의는 전북사학회의의 주간으로 이루어졌으며, 발표 논문의 제목을 다음과 같다. ‘조광환, 「사발통문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배항섭,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 연구현황과 과제」, 박준성, 「백산대회 연구 현황과 과제」, 성주현,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과정과 논쟁점에 대해」 등이었다.

28) 조광환, 앞의, 「사발통문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58~60쪽.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해서는 60여년이 지난 뒤에 기억에 의존하여 서술된 글로 저자인 송재섭이 사실관계를 착각하거나

또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부에 살던 유생 柳暘川이 남긴 기록인 「東學推考」에 보면 고부봉기 이후 2월 19일 監營에서 파견한 관군과 충돌한 이후 동학군은 “合畿湖而直行京師”하고자 했던 의식을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고부봉기 당시에 이미 동학군세력은 서울로 향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1893년 동학교단이 광화문에서 전개한 敎祖伸冤運動 과정에서 이미 서병학 등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고부봉기 단계 동학혁명군이 전국적 규모의 혁명운동을 염두에 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였다.<sup>29)</sup>

고부봉기 기점설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던 당시에 朝廷에서는 ‘호남에서 농민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이 처음에는 고부에서 시작되어 점차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라고 하였다.<sup>30)</sup> 또한 1898년 해월 최시형을 絞刑에 처할 때 갑오년 봄에 피고 전봉준은 고부지방에서 패거리를 불러 모아서 기회를 틈타 관리를 살해하고 城과 鎭을 함락시키는 바람에 湖西와 湖南지방이 결판하고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여 혁명의 진원지를 고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1)</sup> 이밖에 고부기포가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장흥부사 이용택을 按察使로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케 하였으나 이용태가 가혹한 색출과 형벌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탄압하자 동학농민군은 일시적으로 해산했으나 지도부는 여전히 남아 무장기포와 백산대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4월 21일 이용태를 직무태만으로 금산군에 竄配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았다.<sup>32)</sup>

한편 무장기포 기점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주한일본공사관 기록인 「全羅道古阜民擾日記」<sup>33)</sup>에 보이는 ‘3월 13일 완전히 해산하였다. 都長은 처자를

착중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2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성주현, 「사발통문의 재검토와 ‘고부기포’」, 선인, 2014. 412-413쪽.

30) 『高宗實錄』 31권 1894년 4월 18일 조.

3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선인, 2014. 424-425쪽. 성주현, 「사발통문의 재검토와 ‘고부기포’」,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7.5.

32) 『高宗實錄』 31권 1894년 4월 18일 조.

33) 이 자료는 1894년 1월 10일의 고부봉기 발생일자부터 황토현전투 직후인 4월 12일까지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일기형식의 보고서로 정리한 『고부민요일기』를 저술한 巴溪生이란 일본

거느리고 도망가고 나머지 무리들은 체포되었고 줄개들은 歸農하여 모든 일이 끝난 것을 축하했다'라는 내용과 『石南歷史』에 보이는 '그 후 장터로 와서 다시 해산한 후 全大將은 東學密道 수십명을 이끌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헤어졌다'라는 기록 등을 중요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4)</sup>

〈표 2〉 고부봉기 기점설과 무장기포 기점설에 대한 연구자별 경향<sup>35)</sup>

고부봉기 기점설	무장기포 기점설
<p><b>【김인걸】</b>                      ◦ 지역성을 극복하는 농민혁명의 시작으로 고부봉기를 인식(2.20격문)</p>	<p><b>【신용하】</b>                      1단계 : 고부민란 단계(1894.01.11.~03.20)                      ◦ 소민란/소폭동/민요                      ◦ 고부기포와 동학농민혁명을 단절적으로 이해                      2단계 : 제1차 농민전쟁 단계 (1894.03.20.~05.07)                      ◦ 무장기포~전주성 점령</p>
<p><b>【성주현】</b>                      ◦ 3.13 고부기포 해산은 완전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p>	<p><b>【정창렬】</b>                      ◦ 고부기포는 3.13 완전히 해산(고부민요일기)</p>
<p><b>【박대길】</b>                      ◦ 3.13은 '완전한 해산'이 아니라 '전술적 이동'</p>	<p><b>【배항설】</b>                      ◦ 고부기포와 무장기포를 연계하여 이해                      ◦ 고부기포는 민란의 성격(2.20격문)                      ◦ 고부기포는 3.13 완전히 해산(고부민요일기)</p>
	<p><b>【김양식】</b>                      고부기포와 무장기포를 단절시켜 이해</p>

무장 기포의 기점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대체로 고부민란이 일단 끝나

인이 1894년 4월 12일 재부산일본총영사를 통해 일본 의무성에 보고한 내용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주요사료이다. 일본외무성에서는 이 보고서를 매우 중시해서 내각의 각 대신, 추밀원의장, 참모본부 차장 등에게 친전할 것을 요청하며 올려 보냈다. 강효숙은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 상인이나 무역업자가 아니라 일본인 첩보원으로 이해하였다. 강효숙, 「동학농민전쟁에 있어 고부봉기의 위상」,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선인, 2014.

- 3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선인, 2014. 334쪽·174~176쪽. 『석남역사』를 남긴 박문규는 고부에 살았고 고부 조소리 서당에서 전봉준에게 직접 글을 배우기도 한 인물이다. 배항설,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 연구현황과 과제」,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대한 재조명』 전북사학회, 2014. 11.28. 77~78쪽.
- 35) 한규무,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과정과 논쟁점에 대해」에 대한 토론문,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대한 재조명』 전북사학회, 2014. 11.28. 139쪽, 재인용.

고 按覈使 李容泰가 驛卒로 구성된 800명의 관군을 이끌고와 고부민란의 수모자와 동학교도를 색출하기 위해 극악한 횡포와 탄압을 가하자 전봉준 등이 茂長으로 잠행하여 孫化中·金開南 등의 대접주들과 함께 北接에서 분리 독립된 茂長南接都所를 차린 이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sup>36)</sup> 또한 일부에서는 '全州營을 陷落하고 京師로 直行할 事'는 고부민란 이전에 계획된 목표가 아니라 민란의 발전과정 속에서 특히 백산이동 이후 새롭게 정립된 목표라고 주장하였다.<sup>37)</sup> 각각의 주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016년 9월 23일에는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주제 하에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역사용어로서의 '전주화약'의 연원과 전주화약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정리하였다.<sup>38)</sup> 우선 전주화약이라는 용어는 1962년 박종근이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sup>39)</sup> 1970년대에 김의환 등의 연구를 거치며 일반화되었어<sup>40)</sup> 교과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정리되었다.<sup>41)</sup>

전주화약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 보다 부정적인 면이 강했던 것으로 정리되었다. 1985년에 발표된 한우근의 연구에서는 동학농민군이 두 번의 패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전의가 꺾이었던 기회를 틈탄 관군의 선무공작이 주효"했고, 당시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계기로 청·일 두 나라의 군대가 進駐하게 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하루빨리 병란을 수습해야 할 정세에 놓여서, 결국 "동학농민군과 정부 간에 강화가 성립 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한 지 10여 일

36) 신용하,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 『한국학보』40, 1985.

37) 조광환, 「사발통문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대한 재조명』 전북사학회, 2014. 11.28. 61쪽.

38) 이 학술회의에서는 기초강연을 포함해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하우봉,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의 위상-기초강연」, 박대길, 「동학농민혁명 성지로서의 정읍의 역할」, 김인덕, 「전주화약을 둘러싼 관련 세력의 동향에 관한 소고」, 조성운,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의 전주화약 서술의 변천」, 성주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과 전주화약의 의미」.

39) 박종근, 「甲午農民戰爭(東學亂)における'全州和約'と'弊政改革案」, 『歷史評論』 140, 歷史科學協議會, 1962.

40) 김의환, 「전주화약과 집강소」, 『한국사상』 12, 한국사상연구회, 1974.

41) 조성운, 「해방 이후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 변천」, 『민족종교의 두 얼굴 동학·천도교의 저항과 협력』, 선인, 2015.

만에 城의 東門과 北門을 열고 일제히 철수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42)</sup>

1997년에 발표된 배항섭의 연구에서는 1894년 5월 8일 이루어진 전주화약을 통해 농민군이 얻어낸 것은 弊政改革案을 조정에 보고하고 해산 시에 농민군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초토사 홍계훈의 약속 뿐 이었다면서, 전주화약을 농민군의 승리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주화약'은 주체적 역량의 미숙과 전술적인 오류를 범한 탓에 전주성 점령 이후 오히려 수세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 농민군 측이 먼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반면에 청국군의 도움 없이도 농민군을 진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던 관군 측이 서둘러 농민군 측의 강화요구에 응한 것은 무엇보다도 청·일군의 출병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따라서 농민혁명군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전주화약은 외적 요인에 의해 '주어진 강화'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하였다.<sup>43)</sup>

1993년에 발표된 김양식의 연구에서도 전주화약의 조건은 농민군이 全州城에서 철수하는 대신 요구한 27개조의 폐정개혁안을 중앙에 보고한 뒤 시행토록 하겠다는 것과 농민군에 대한 신변보장을 골자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농민군의 지도부는 농민군에 대한 신변보장과 폐정개혁을 거듭 요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라감사 김학진과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44)</sup> 그러면서 필자는 전주화약은 결과적으로 농민군의 패배, 정부군의 승리라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이렇게 볼 때 기존의 통설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sup>45)</sup>

이밖에 2004년에 발표된 장영민의 연구에서는 전주화약에 대해 '전주후퇴' 또는 '전주해산'이라고 규정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sup>46)</sup> 그는 전주화약에 대해 "동학농민군은 전주 해산을 자신들의 자유롭고 주체

42) 한우근, 『동학농민봉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192~193쪽.

43) 배항섭, 「집강소 시기 동학농민군의 활동양상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53, 역사학회, 1997, 74쪽.

44) 김양식, 「제1·2차 전주화약과 집강소 운영」, 『역사연구』 2, 역사학연구소, 1993, 163~164쪽.

45) 김양식, 「과대평가된 전주화약」,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 거름, 1994.

46) 장영민 「동학농민군의 '전주화약'에 관한 재검토」, 『동학의 정치사회운동』, 경인문화사, 2004, 339~341쪽.

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며, 상대방과의 대등한 관계와 조건에서 수용한 것도 아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필자는 한마디로 전주해산은 관군에게 대패함으로써 궤멸 직전에 놓여 있던 동학농민군이 취할 수밖에 없던 선택이었고 그것은 결국 정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기본방책으로 내놓은 위무와 탄압이 일단은 주효했던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학농민군의 자신해산은 전력상 관군을 당해낼 수 없던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고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였다. 한편 전주화약 당시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전주화약 당시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상황<sup>47)</sup>

구분	동학농민군	관군
전체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차례의 완산전투 패전으로 1만 여 명 중 상당수</li> <li>• 전봉준의 왼쪽 허벅지 부상 등 지휘력 약화</li> <li>• 전주부 내의 질서유지 곤란</li> <li>• 전주성 입성으로 관군에게 포위당한 형국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군 향군의 증원과 군량미 확보 양호</li> <li>• 완산봉을 비롯한 전략적 우위지역에서 전투수행</li> <li>• 청병 차병 요청의 문제점 인식. 청군 상륙 저지 요청</li> </ul>
대내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성 내 1만 여명 군량미 부족으로 장기전 수행 곤란</li> <li>• 완산전투에서 화력의 열세로 동학농민군 피해 발생</li> <li>• 이복룡·김순영 등의 전사로 인한 핵심 전력의 손실로 사기 저하</li> <li>• 농번기 철로 농민이 주축인 전투 지속 곤란</li> <li>•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지원 미흡</li> <li>• 지도부와 하부조직 간의 내부 괴리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산전투에서 화력의 우세로 연승은 거두었지만 압승은 쉽지 않음</li> <li>• 경군, 감영군, 향군의 혼합부대로 효율적 지휘 곤란</li> <li>• 전라감사 김학진의 효유 위주의 조기 종결 압력</li> <li>• 전주성 입성에 참가하지 못한 동학농민군이 물려온다는 풍문</li> <li>• 홍계훈의 판단으로 장기전의 경우 문책예상</li> <li>• 전주성을 수복할 확실한 전략의 부재</li> </ul>
대외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청군 개입 인식</li> <li>• 완산전투 피해에도 상당한 세력으로 대처 전선 유지</li> <li>• 청·일 등의 외세개입에 따른 동학농민군 지도부의 부담감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나라 군대 5월 6일 아산만 상륙</li> <li>• 청나라 군대 파병의 빌미로 일본 군대 5월 6일 인천상륙</li> <li>• 청·일 양국군의 파병으로 서울의 정세 불안 고조</li> </ul>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전주화약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47) 최창목,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132쪽 재인용.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 된 측면이 있어 보이며, 이 경우 전주화약을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sup>48)</sup>

#### IV.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민족운동의 전개

동학농민혁명 이후 동학농민혁명을 계승한 민족운동이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정읍지역의 동학·천도교인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정리한 <표 1> 2014년 11월 (사)정읍시동학혁명계승기념사업회와 동학역사문화소가 주최한 『정읍지역 근·현대민족운동사』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가 학술대회로는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9)</sup> 그러나 이 연구는 일부 논문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0)</sup> 이밖에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조성운의 '1920년대 정읍지역의 민족운동'<sup>51)</sup>과 기존의 청년회 조직<sup>52)</sup>과 소년운동<sup>53)</sup> 등이 있을 뿐이다.

48) 성주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과 전주화약의 의미」,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학술발표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 9.23, 107쪽.

49) 이 발표집에 게재된 논문은 조광환, 「己亥 정읍농민봉」, 유종국, 「丙午倡義와 武城書院」, 이진우, 「3·1운동과 박준승」, 송은숙, 「정읍지역의 항일운동가」, 김영재, 「일제강점기 普天敎의 민족운동」, 곽형주, 「瀛州精舍와 민족운동」, 박래철,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박재표 순경 환표폭로사건」, 정승룡, 「정읍민주화운동사(1960년대 이후)」, 한명수, 「동학농민계승사업회의 탄생 비화」 등이다.

50) 이 연구는 '식민지시기 정읍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나 이 책에서 수록된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이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조성운, 「1920년대 정읍지역의 민족운동」(미발표 원고)

51) 조성운의 연구는 '정읍지역의 청년운동을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시기(1919~1924)와 사회주의에 입각한 시기(1925~1930)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력양성론적인 청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읍지역 근·현대민족운동사』 학술발표집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몇가지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하며, 이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운동의 개략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己亥정읍농민봉기’에서는 ‘英學黨事件’으로 알려진 1899년의 이 봉기에 대해 그 전개과정과 중심인물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보국안민과 외세배격을 외친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보았다.

특히 중심 인물에 대해서는 손화중포의 남은 세력인 정읍의 최익서와 고창의 홍계관과 홍낙관이 중심이 되어, 김계남포의 남은 세력인 김문행과 북접계열의 김낙철 등이 연계하여 일으킨 것으로 보아 그 구성원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한편, 최초의 봉기지역인 입암 왕심마을에 기념 상징조형물을 세울 것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sup>54)</sup>

정읍지역 3·1운동에 대해서는 태인면과 정읍면에서의 전개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데 특히 태인의 경우는 정읍재판소에서 제1심판결을 받은 25명의 명단과 형량을 정리하였으며, 1919년 3월 18일 전라북도장관이 정무총감에게 보낸 긴급전보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3월 16일 정오 태인면사무소 부근에서 약 200명의 시위대가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헌병이 시대를 향해 권총을 겨누고서야 겨우 진압할 수 있었으며, 주모자 5명 이외에 체포된 자가 2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5)</sup>

정읍면에서의 3·1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세력이 연합하여 진행되었으며, 3월 23일 정읍장날을 기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나 거사가 있기 전날 밤 일본헌병의 기습을 받아 타격을 받았으며, 장터에 100명의 군중이 모

---

년운동이 사회주의에 입각한 청년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52) 송만오,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의 조직과 활동」, 『전북사학』28, 전북사학회, 2005.  
 53) 최명표, 「1920년대 정읍지역 소년운동의 전개양상」, 『용봉인문논총』37,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54) 조광환, 「기해(己亥)정읍농민봉기」, 『정읍지역 근·현대민족운동사』, (사)정읍시동학혁명계승기념사업회와 동학역사문화소, 2014.  
 55) 이진우, 「3·1운동과 박준승」, 『정읍지역 근·현대민족운동사』, (사)정읍시동학혁명계승기념사업회와 동학역사문화소, 2014.

였으나 주동자가 체포된 상황에서 '독립만세'를 한번 외치고 해산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 4월 2일 장날에는 다시 한번 만세운동을 전개하여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읍에서의 만세시위의 상황은 총독부기관지였던 『매일신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동군 태인면 태인장날 즉 지나간 16일 오전 11시쯤 되어 별안간 학생 6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시중을 돌아다니며 시위운동을 한즉 장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운동이 시작되어 시장은 철시되고 심히 불온 중에 헌병 이하 보조원 몇 명이 출동하여 해산케 하고 주모자 6명을 잡고 간신히 진정되었으나 오히려 민심이 흉흉하다더라.<sup>56)</sup>

위의 내용에서 보면 태인 장날의 만세시위는 16일 오전 10시경에 학생 60여명이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시장은 철시되고 심히 불온한 중에 간신히 진정되었으나 오히려 민심은 흉흉하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기록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태인면에서 시위운동은 비교적 심각한 양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정읍지역의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를 중심으로 정리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총 64명의 인물들이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임병찬, 백정기, 고평 등은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역적 연고와 특성을 반영한 한층 더 심화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겠다.<sup>57)</sup>

이밖에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해 다루고 있는 논문도 발표되었는데 이 논문에서 보천교가 1925년 친일단체인 時局大同團 결성 이전까지 민족운동에 동참 내지 일조했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상해임시정부와 정의부,

56) 「상금 인심흉흉」, 『매일신보』 1919. 3. 28.

57) 송은숙, 「정읍지역의 항일운동가」, 『정읍지역 근·현대민족운동사』, (사)정읍시동학혁명계승기념사업회와 동학역사문화소, 2014.

김좌진 장군에 대한 군자금 지원이나 태을교도의 국권회복운동 등에 대해 정리하기도 하였다.<sup>58)</sup>

그러나 정읍지역의 일제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제하 정읍지역 청년운동이나 형평운동, 혹은 적극적인 3·1운동을 가능케 했던 교육운동 등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계승이 일제하에서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주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겠다.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읍시를 중심으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 관련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회에서 발표된 논문 68편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글이며, 크게 보아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문제와 고부봉기와 전주화약의 성격문제 및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정읍지역에서의 민족운동에 대해 다루었다.

그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약 10번의 학술회의를 주관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고부민란이 아니라, 봉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무장기포와 백산대회로 이어지면서 혁명이 보다 구체화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읍지역에서의 동학혁명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향후 이 같은 경향을 강조하는 합리적인 연구성과의 축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학혁명 기념일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의 내용

58) 김영재, 「일제강점기 普天敎의 민족운동」, 『정읍지역 근·현대민족운동사』, (사)정읍시동학혁명계승기념사업회와 동학역사문화소, 2014.

으로 볼 때 전주화약을 기념일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동학혁명 기록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며, 동학혁명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연구영역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읍지역의 민족운동연구와 관련해서는 영학당과 3.1운동 및 1920년대의 청년운동에 대한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보천교나 형평운동에 대해서는 연구 영역의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정읍출신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인물연구는 동학혁명 이후 정읍지역의 민족운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연구주제라는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동아일보』, 『開闢』, 『대동신문』, 『신인간』, 『高宗實錄』, 『매일신보』  
일기자, 「갑오동학란의 자치자중」, 『개벽』 68, 1926.4.  
박종근, 「甲午農民戰爭(東學亂)における『全州和約』と『弊政改革案』」, 『歴史評論』 140, 歴史科  
學協議會, 1962.  
신용하,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 『한국학보』 40, 1985.  
김의환, 「전주화약과 집강소」, 『한국사상』 12, 한국사상연구회, 1974.  
성주현, 「천도교와 동학혁명 기념일」, 『신인간』 731, 신인간사, 2011. 8.  
조성운, 「해방 이후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 변천」, 『민족종교의 두  
얼굴 동학·천도교의 저항과 협력』, 선인, 201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동학농민혁명과 전주화약』, 선인, 201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 선인, 2014  
한우근, 『동학농민봉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 전북사학회편,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흐름, 2011년 12.
- 배항섭, 「집강소 시기 동학농민군의 활동양상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53, 역사학회, 1997.
- 김양식, 「제1·2차 전주화약과 집강소 운영」, 『역사연구』 2, 역사학연구소, 1993.
- 김양식, 「과대평가된 전주화약」,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 거름, 1994.
- 장영민 「동학농민군의 '전주화약'에 관한 재검토」, 『동학의 정치사회운동』, 경인문화사, 2004.
- 최창묵,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송만오,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의 조직과 활동」, 『전북사학』28, 전북사학회, 2005.
- 최명표, 「1920년대 정읍지역 소년운동의 전개양상」, 『용봉인문논총』37, 전남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10.

〈Abstract〉

## Issues and Subjects of Studie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f Jeongeup (Gobu) Region

Hwang, Min Ho

This article analyzes research trends of 68 papers which are published during a total of 12 academic conferences since 2011 held in Jeongeup-shi where Donghak Peasant Revolution germinated. Roughly, three big events were examined such as establishing memorial day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understanding characters of Gobu Uprising and Jeonju Agreement and development of nationalist movement in Jeongeup region after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search trends concerning Donghak peasant Revolution emphasizes Gobu Revolt as the first historical event that led to Donghak Peasant Revolution, rather than restricting the meaning of the revolt as an uprising of cheondoism movement. However, it seems necessary to accumulate more capacity of research supporting this contention to get acceptance from the overall academia.

Also, in regard to establishment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day, there is a lot of further examination required at the present point of view to appoint Jeonju Agreement day as memorial day. On the other hand, registering records of Donghak Revolution for the world heritage registration project needs full support from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y.

In regard to study on nationalist move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n Jeongeup region, in the case of Bocheongyo movement and Hyeongpyeong movement research based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se movements and actively expanding the area of research is required. Furthermore, studies on important figures related to independence movement connected with regional specificity has to overcome rudimentary standard and requires intensive research.

**Key words** :Donghak Peasant Revolution, Jeonju Agreement, Gobu Revolt, Gobu Uprising,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day, Bocheongyo Movement, March 1<sup>st</sup> Movement of Jeongeup Region.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20일 1차 심사를 거쳐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